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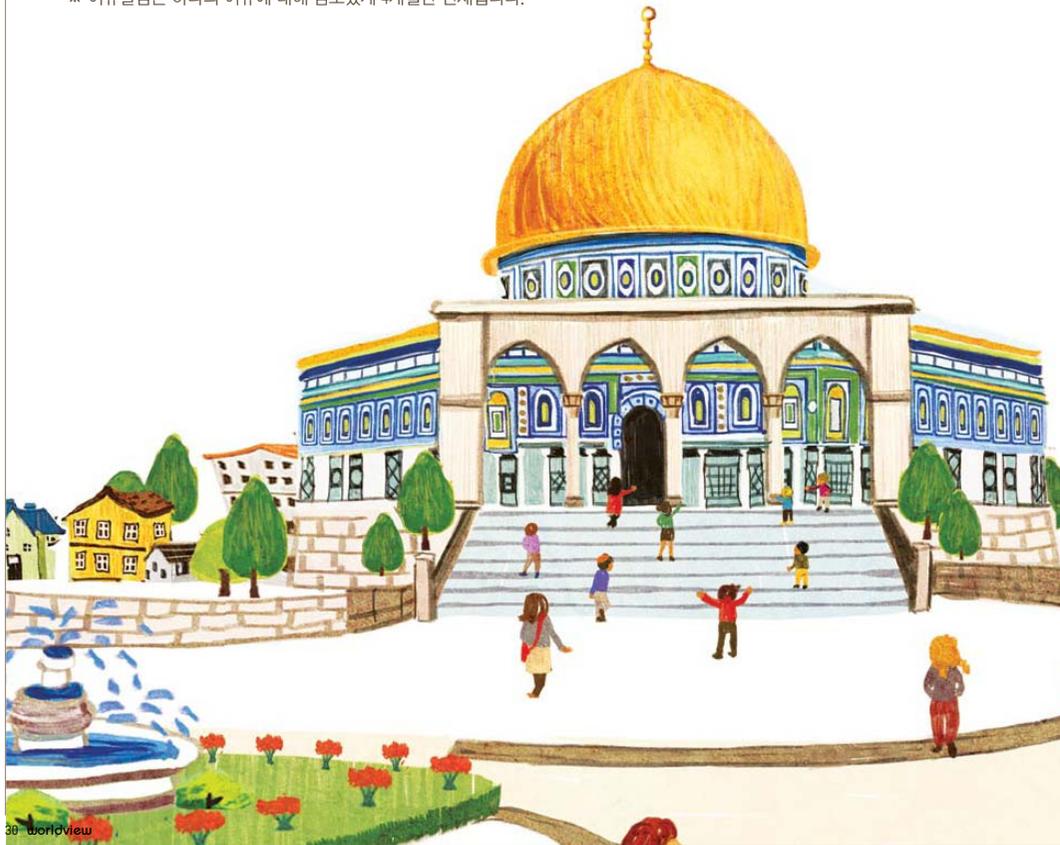
#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3 이슬람의 믿음

유해석 (FIM국제선교회 대표)

## 깊이 들여다 보는. 이슬람 읽기

- 01. 한국의 이슬람
- 02.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 03. 이슬람의 믿음
- 04. 기독교에 들어온 이슬람

\* 이슈칼럼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4개월간 연재됩니다.



3년 전 한 여중생이 본회에서 주최하는 이슬람선교학교에 참석했다. 이슬람선교학교에 중학생이 참석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슬람에 대해 공부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그 학생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담임선생님께서 매일 조회시간에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종을 강요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인 저로써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항의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약 80% 이상은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소위 'Back-Sliding Christian'으로 불린다. 이슬람은 그들의 믿음 아래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종교이다. 그들의 교리는 종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 여섯 가지 믿음의 내용

### 1. 알라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 신(神)의 이름은 알라Allah이다. 무함마드에 의하여 이슬람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는 카바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 안에는 360개의 우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알라는 달 신의 이름이었다. 이는 무함마드가 속한 쿠라이쉬 부족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기도 했다. 카바 신전 안에는 알라의 딸들로 불리는 세 여신이 있었지만 무함마드는 이 알라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대교처럼 유일신으로 정리하였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창조주이고 심판자이며 전능자이고 영원하며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 '알라'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God)이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알라의 내재된 속성은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다. 따라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 천사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의 천사는 알라가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신성이 없고 권위도 없으며, 또한 사람을 위하여 알라에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알라는 인간이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을 창조한 첫째 날에 천사들은 이미 알라에 의하여 아담 앞에 굴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이슬람의 천사들은 죄가 없고, 항상 사람들을 감싸고 있으며 사람의 좋은 행실과 나쁜 행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날 무덤 속에 찾아와 죽은 자의 신앙을 조사하는 두 천사가 있고, 여덟 천사가 알라의 보좌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와 사람 사이에 진Jinn이라는 존재가 있으며 이것은 좋은 진과 나쁜 진으로 나뉜다고 믿는다. 나쁜 진은 심판의 날에 유죄를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 3. 책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인류에게 104권의 거룩한 책을 주었다고 믿는다. 아담에게 10권, 셋에게 50권, 에녹에게 30권, 아브라함에게 10권, 모세에게는 율법책, 다윗에게는 시편, 예수님에게는 복음서를 주었으며, 무함마드에게는 꾸란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주었던 책은 모두 분실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으며, 그 내용 중에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두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특별히 무슬림들은 현재 남아있는 네 권의 책을 귀하게 여기는데 토라(Taurat, 모세에게 준 책), 자브라(Zabra, 다윗에게 준 책), 인질(Injeel, 예수님에게 준 책), 그리고 꾸란(Quran, 무함마드에게 준 책)이 그것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꾸란은 알라에게서 온 최종적인 계시로 인간에게 준 알라의 완성된 마지막 계시인 것이다. 이슬람 학자들은 성경의 구약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변질되었고 신약은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변질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꾸란은 성경의 부패를 바로잡고 알라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꾸란에 있는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성경이 변질되기 이전에 있던 내용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꾸란에서 꾸란 이전의 성경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 4. 선지자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12만 4천 명의 선지자와 315명의 사도만이 알라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 특별히 6명의 선지자에게만 알라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이다. 꾸란에는 또한 25명의 선지자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그들은 알라의 유일하심과 인간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을 경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시리아의 무슬림 소녀) PHOTO BY 유해석

꾸란에 언급된 25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4명은 아랍인, 18명은 구약성경의 인물, 3명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사기라, 세례 요한, 예수님이다. 사실 꾸란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신약성경보다도 꾸란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할 경우, 무함마드의 생애가 축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 5.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꾸란은 세상의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고 믿는다. 심판은 꾸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꾸란 전체 구절에서 14%나 차지하고 있다. 꾸란에 의하면 마지막 날 천사들이 증인이 되고, 진들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불려질 것이라고 한다.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는 저울에서 그 무게가 달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 또한 모든 사람의 삶은 행위의 책에 기록되는데, 알라의 오른쪽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알라의 왼쪽 천사는 악행을 기록한다. 이 책에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모든 말과 행위들이 기록된다.

### 6. 속명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는 오직 알라만이 인간의 행위와 운명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은 일종의 속명론으로서 알라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여타의 간섭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속명론에 대해서 모든 무슬림이 확실하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속명론을 확신하는 이들은 수니Sunni 무슬림인데, 속명론과 관련된 교리들은 이들에 의하여 훗날 추가된 것들이다. 이슬람의 다른 교파에서는 인간이 자기 행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거의 모든 무슬림은 알라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판에 새긴 것처럼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다는데 동의한다. 실제로 꾸란에는 “알라가 원하는 대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 그것은 인간의 선함과 악행도 전적으로 알라에게 달려있기에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며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신제로 신실한 무슬림들은 인살라(알라의 뜻이라면) 라는 말을 항상 사용하면서 그들의 모호한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 이슬람의 믿음의 중심

### 1. 경전(Quran)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114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약성경 정도의 분량이다.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내용이라고 한다. 무슬림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이 천국에 있는 꾸란과 완전히 똑같다고 믿고 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꾸란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꾸란’이라는 말은 ‘암송하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으며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23년 동안 받은 내용이다. 꾸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다가올 심판 날에 대한 경고, 둘째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셋째는 무슬림의 삶에 대한 조항들로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꾸란은 무함마드가 살아 있을 때 완성된 것이 아니다. 무함마드가 생전에 받은 계시의 내용을 추종자들이 아자수윳이나 동물의 뼈, 하얀 돌에 썼던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꾸란의 첫 번째 사본은 무함마드가 죽은 지 20년이 지나서 편찬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무함마드의 3대 후계자인 우스만이 자이드에게 꾸란의 수정을 요구했고, 그에게 직접 책임편집을 맡긴 후에 그 이전의 사본은 모두 불태웠다. 우스만은 이렇게 만든 새로운 사본을 각 도시로 보냈다. 그러나 이 사본도 역시 결함이 많아서 다듬고 개선해야 했다. 결국 이슬람이 시작된 지 1세기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현재 형태의 꾸란이 완성되었다. 무슬림들은



(시내산 정상에 모세기념교회) PHOTO BY 유해석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여대생들〉 PHOTO BY 유해석

꾸란을 '알라가 행한 기적'이라고 여기며 꾸란에 깊은 존경심을 갖는다. 그들은 손을 씻은 후에 꾸란을 만지고, 꾸란을 허리 아래 들지 않는다.

## 2. 전통(Hadith)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으로 무함마드가 생전에 말한 것들과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디스를 순나(Sunnah, 관행)라고도 부르는데, 전체 무슬림 인구의 80%는 이 '순나'에서 유래된 수니 무슬림들이다. 무슬림들은 알라가 무함마드의 언어와 행동을 무슬림에게 모델로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디스를 꾸란에 이어서 제2의 경전으로 여긴다. 무함마드가 죽은 뒤에 2, 3대에 걸쳐서 많은 하디스가 있었다. 그러나 하디스는 구체적 인 내용과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여섯 개의 하디스만이 9세기에 인정되었다. 그 가운데 2개의 하디스가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그 저자는 알 부카리(A.D.870)와 알 무슬림(A.D.875)이다. 알 부카리는 수없이 많은 무함마드 언행록을 살살이 조사하여 20만 개를 모았는데 그 중에 7,300개만을 신뢰할만한 것으로 간주해서 하디스로 편집했다. 그리고 이슬람은 종파에 따라서 채택하는 하디스가 다른데, 시야파의 경우에 다른 하디스를 사용하고 있다.



유해석 총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웨일즈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선교사, OM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90년부터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영국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과 유럽 코스타 강사 및 선교분과장, CTS 기독교 TV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토마스 목사전, '만화 이슬람', 등이 있다.

제대로 된 메카 순례방법,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 등이었다. 이들은 또한 법을 신학으로부터 구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이슬람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이슬람의 각 교파마다 권위 있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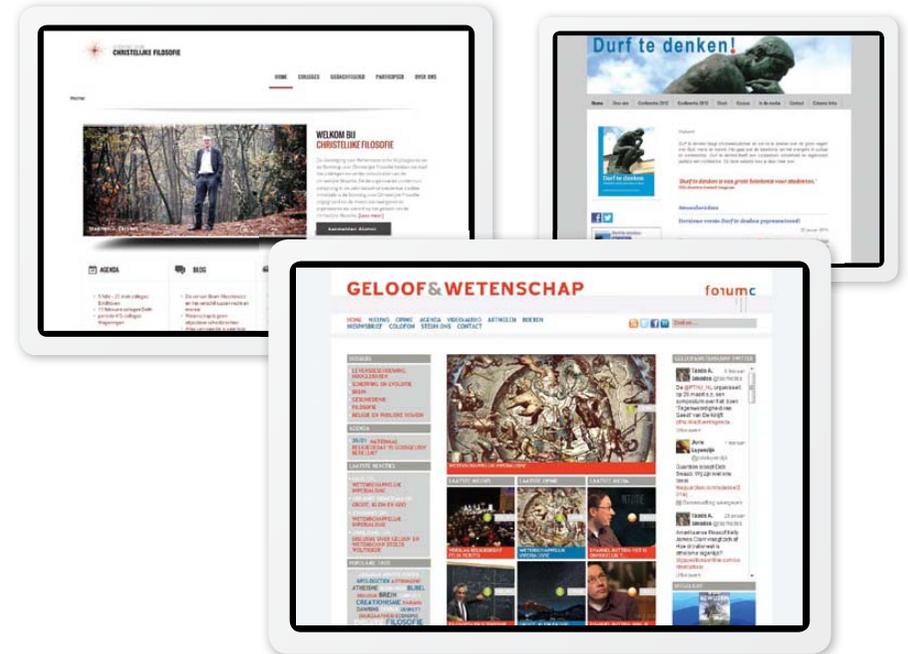
## 3. 이슬람 법(Sharia)

초기 무슬림 학자들은 신학보다 법학을 연구했다. 그들이 보기에 초기 꾸란과 하디스에는 신학적 요소와 법적 요소 사이에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꾸란과 하디스를 해석해서 새로운 이슬람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메카 순례방법,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 등이었다. 이들은 또한 법을 신학으로부터 구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이슬람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이슬람의 각 교파마다 권위 있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샤리아 법도 이런 연구의 산물이다. 샤리아 법에는 다섯 개의 중요한 이슬람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공적으로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까지 어기는 것이 된다.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는 샤리아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2014년 19번째 FIM 이슬람선교학교가 2014.3.13.-5.15. 매주 목요일 저녁 7:30-9:30(10주간) FIM선교센터에서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을 받습니다. (문의 1599-5591)

# ForumC(forumc.nl) 및 Geloof & Wetenschap(www.geloofenwetenschap.nl)

최용준 (학회지<신앙과 학문>편집위원장, 한동대 교수)



이 둘은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 사이트라 할 수 있다. 먼저 ForumC는 신앙, 학문, 사회에 대한 하나의 포럼으로 기독교 신앙을 학문과 사회의 중요한 질문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다양한 출판물들과 학술적 저널인 Radix를 발행하고 있으며, ForumC 토론회 및 심포지움들을 개최하여 각 학문 분야 기독교학자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는 www.geloofenwetenschap.nl도 운영하고 있다.

ForumC는 기독교 신앙을 사회, 문화 및 삶의 다양한 질문들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열린 자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사회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섬기며 두각을 나타내도록 공헌하고 있다. 이 단체가 다른 기관들과 구별되는 것은 반성적 토론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기독교 서클 내외에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영향력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